

## 국어 유정성 개념에 대한 일고찰

서로

### 차 례

1. 머리말
2. 국어 유정성에 대한 개념 고찰
3. 어휘 품사 분류에 의한 유정성
4. 문법에서 나타나는 유정성 현상
5. 맺음말

### 1. 머리말

유정성(有情性)은 수많은 언어에 나타나는 범언어적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범위는 현재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어학에서의 유정성 개념은 서양으로부터<sup>1)</sup> 전해져 옴으로써 국어에서 나타나는 유정성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여 비교적 늦게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심도 있게 펼친 논의도 그리 많지 않다.

‘유정성’이라는 용어는 영어 ‘amimacy’의 번역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유정성’의 ‘유’는 ‘있거나 존재함’으로, ‘정’은 ‘[1]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 [2]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으로, ‘성’은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본성이나 본바탕’으로 뜻풀이되어 있다.<sup>2)</sup>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종합하면 ‘유정성’은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성질이라는 뜻이다. 반면에 unanimacy는 ‘유’와 상반된 의미를 가진 ‘무’나 ‘비유’를 사용해서 ‘무정성’이나 ‘비유정성’으로 번역한다.

유정성은 언어 연구에서만 아니라 일반 화자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촉하는 영역이다. 생물학에서 흔히 객관 세계를 유기체와 무기체로 범주화하여 유기체를 다시 인간과 비인간으로 세분화하듯이 국어에서도 유정성의 흔적이 나타나는데 이런 언어 현상은 너무 보편적이고 상식화되어 감지되기 어려운 편이다. 예를 들면, 여격 조사 ‘에/에게’의 선택, 주체경어법의 선어말어미 ‘-시’의 사용, 그리고 동물성 의존명사인 ‘마리, 두, 필’과 식물성 ‘포기, 그루, 뿌리’의 구별 등에서 종종 유정성의 흔적

1) 언어학에서 유정성에 대한 첫 번째 기술은 보통 R.R.K.Hartmann & F.C.Stork(1972)과 Silverstein(1976)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에서 처음으로 ‘animacy’이란 용어를 수록하였다.

2)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ict.korean.go.kr>).

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유정성의 표현은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중국어의 인칭대사와 인물명사<sup>3)</sup> 뒤에만 복수표지 ‘們’<sup>4)</sup>을 붙일 수 있으며, 인칭대사 ‘他/她/它’는 남성/여성/동물성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또한 ‘名(명), 位(분)’ 등은 사람에게만 결합하는 양사<sup>5)</sup>로 사용된다. 영어의 경우, 주격 인칭대명사인 “I”、“he”、“she”와 대응되는 목적격 인칭대명사는 “me”、“him”、“her”이 존재하지만, 인칭을 나타내지 않는 대명사는 “it”밖에 없으며 한국어에 비하면 무정주어가 유정주어보다 더 많이 쓰인다. 그 중 유정성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언어는 일반적으로 멕시코의 Totonac languages와 Southern Athabaskan languages<sup>6)</sup>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형태론과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정성 표현의 다양화는 언어별로 유정성의 정도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어에서 나타나는 유정성에 대한 특성 및 개념도 연구할 의미와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유정성에 대한 연구는 특정한 문법 현상과 유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다른 언어와 유형론적인 유정성 대비를 한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유정성 자체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문법 규정을 기초로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먼저 특정한 문법 현상과 유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유현경(2007), 김형정(2010), 주향아(2013), 한승규(2014), 김충실(2017), 홍용철(2017), 김지혜(2021) 등을 들 수 있고, 다른 언어와 유형론적인 유정성 대비를 주제로 한 연구는 조인정(2005), 김현희(2018), Yue Yifei(2018), 문연정(2019), Sholeva, Irina Konstantinova(2021), 리칭린(2021)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국어에서 나타나는 유정성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유정성에 대한 개념 고찰부터 시작하여 깊고 폭넓은 유정성 연구에 대한 첫 발걸음을 내딛으려고 한다. 선행연구 정리와 분석을 바탕으로 국어에 부합하지 않는 ‘유정성’ 용어를 재정립하여 이의 개념과 범위를 다시 우선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새롭게 내린 국어 ‘유정성’의 정의를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 어휘 품사별로 나타나는 유정성의 상황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통사의미론의 관점으로 위 논의를 기초로 실제 국어 문법에서 나타나는 유정성 현상을 일일이 논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유정성 개념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본고는 국어 유정성 개념에 대한 틀을 재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국어 유정성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3) 현대 중국어에서는 단수를 뜻하는 인칭명사는 ‘我(나)、你(너)、他(남자를 지칭하는 ‘그 사람’)、她(여자를 지칭하는 ‘그 사람’)、它(사람 이외의 존재를 지칭하는 ‘그’) 등이 있으며 그 들의 복수형식이 ‘我們、你們、他們、她們、它們’ 등이 있다. 문법상 중국어 인칭대사는 한국어의 인칭대명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 명사를 인물명사, 사물명사, 시간명사, 방위명사, 관계명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인물명사는 ‘學生(학생)、群衆(민중)、老頭(영감)、婦女(여자)、同志(동지)、叔叔(삼촌)、維吾爾族(위구르족)、酒鬼(술꾼)’ 등과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를 가리킨다.

4) 리칭린(2021: 38)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복수표지는 대응하는 ‘-들’과 ‘-們’ 이외에 영형태도 있다고 하였고, 중국어보다 한국어의 복수표지는 더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어 ‘-們’은 일반적으로 무정명사 뒤에 쓰일 수 없지만 한국어 ‘-들’은 무정명사 뒤에 쓰일 수 있다.

5) 중국어 문법 중 양사는 한국어의 수사와 대응한다.

6) 나바호족어를 비롯한 언어들이다.

## 2. 국어 유정성에 대한 개념 고찰

지금까지 유정성에 대한 논의 중에 유정성에 대한 확실하고 알맞은 정의와 범위 설정이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2장에서는 유정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밝히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유정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도록 한다.

### 2.1. 국어 유정성 문제 제기

한국에서 유정성과 관련한 논의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세기 전에 Comrie(1989: 9장), Croft(1990), 연재훈(1995:203-230, 1996:241-275), Yamamoto(1999: 70)<sup>7)</sup> 등 논의는 ‘animacy’에 대한 논술해왔다. 유정성은 일부 문법 현상을 통해 개별언어에서 의미영역이 부호화되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식되었다.

김은일(2000)에서는 유생성<sup>8)</sup>이라는 의미영역이 개별 언어적으로나 언어 유형론적으로 모두 부호화되어 있으며, 유생성 현상은 문법적인 일부 현상이 아니라 형태적 단계에서부터 어휘적, 통사적 단계에 이르기까지 한 언어의 문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제시하였다.<sup>9)</sup> 국어학에서 처음으로 유정성을 전국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영어를 기준으로 삼아 언급하였던 ‘부호화’의 개념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

유현경(2007)에서는 조사 ‘에게’와 유정성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에게’와 동사의 결합은 명사의 [유정성] 자질과 관계없고, 동사의 어휘자질에 의한 것일 뿐이란 결론을 내렸다.<sup>10)</sup> 조사 ‘에게’는 ‘에’의 이형태가 아니라 고유의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형태소이며, ‘에게’는 ‘결합하는 명사의 [유정성] 자질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표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sup>11)</sup> 동시에 무정물도 유정성을 갖는 예시를 통해, 살아있는 모든 것이 유정물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였다.<sup>12)</sup> 이는 국어학적으로 유정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공하였다.

김형정(2010)에서는 조사 ‘에게’와 ‘에’에 선행하는 실증적인 명사구 말뭉치를 이용하여 유정성 위계를 ‘유정물 체언 >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적 존재 > 무정물 체언’과 ‘사람고유명 > 사람 보통명사’, ‘인칭대명사 > 사람 보통명사’, ‘단수 명사구 > 복수 명사구’ 등 계층으로 기술하였다.<sup>13)</sup> 해당 조

7) Comrie, Bernard. 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econd E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roft, William. 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연재훈(1995), 기능 - 유형 문법에서의 분석과 설명, 《언어학》 17권, 한국언어학회, 203-230쪽.

연재훈(1996), 국어 여격주어 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의 연구, 《국어학》 28권, 국어학회, 241-275쪽.

Yamamoto, Mutsumi. 1999. Animacy and Reference (Studies in Language Companion Series 46).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8) 김은일(2000)에서는 유정성이란 용어를 ‘유생성’으로 기술하였다.

9) 김은일(2000), 유생성의 문법, 《현대문법연구》 20권, 현대문법학회, 71-72쪽.

10) 유현경(2007), ‘에게’와 유정성, 《형태론》 9권 2호, 형태론, 271쪽.

11) 유현경(2007), ‘에게’와 유정성, 《형태론》 9권 2호, 형태론, 257쪽.

12) 유현경(2007), ‘에게’와 유정성, 《형태론》 9권 2호, 형태론, 271쪽.

13) 김형정(2010), 선행명사구의 유정성과 조사 「에게/에」의 선택, 《언어사실과 관점》 26 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48쪽.

사 ‘-에/에게’의 선택 문제 중 가장 관여적인 요소는 ‘유정성’이라고 하였으며, 유정성 위계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조사 ‘-에게’가 선택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의미론적으로 전통적인 ‘[+유정]:[-유정]’의 이분법적 분류 방식을 돌파했다고 할 수 있다.

김충실(2016<sup>14</sup>)에서는 한국어 격조사의 유정성은 통시적인 관점에서 중세국어 시기에 많은 흔적을 볼 수 있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줄어들었다고 주장하였다.<sup>14)</sup> 김충실(2017)에서는 명사구 병렬문의 어순과 유정성, 주술구문의 어순과 유정성, 이중목적어문 어순과 유정성으로 분류해서 어순과 유정성의 관계를 검토하였다.<sup>15)</sup> 이외에도 김충실(2014)과 김충실(2016<sup>16</sup>) 등 논술이 있는데 이들이 거시적으로 더 넓은 영역에서 유정성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였다. 이들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또 최근에 와서 의미역을 이용한 유정성 연구도 나타났다. 현혜린(2018)에서 유정성의 위계나 주어로 실현되는 의미역의 위계에 관해 주어 위계를 중심으로 유정성은 언어학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고 말했다.<sup>16)</sup> 그리고 생물 주어(사람 주어)가 나타나는 문장에서 불완료상이 많이 선호되고 반대로 무생물 주어(사물 주어)가 있는 문장에서는 완료상 선호로 이어진다고 언급하였다.<sup>17)</sup> 김지혜(2021)에서는 무정 체언과 조사 ‘-에게’의 결합 원인을 크게 ‘환유’와 ‘은유’ 두 가지로 분석하였으며, 이런 현상은 무정물이 유정성의 위계에서 유정과 무정의 중간적인 범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8)</sup>

지금까지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유정성은 문법적·의미론적 자질 중의 하나로, 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이 생명·의식 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Yamamoto(1999)에서는 ‘생명도’<sup>19)</sup>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여 동물,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인지적 척도’라고 말했다.<sup>20)</sup> 김은일(2000)에서는 유생성이란 생명을 가진 생물과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생명의 유무, 즉 유생성에 따라 언어표현이 다르게 부호화되는 현상이 많은 언어 현상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sup>21)</sup> 김형정(2010)에서는 ‘유정성’이라는 의미 개념은 ‘명사구에 내재하는 본질적 의미 특성에 따른 위계적 범주’로서 파악할 때 비로소 그 본질이 올바르게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sup>22)</sup> Kittila, Seppo 외(2011:5)에 따르면 언어학적 의미에서의 유정성은 개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힘이나 사건을 발생하게 하는 힘에 기초하여 정의된다.<sup>23)</sup>

그러나 이 개념들은 실제적인 국어 유정성 현상과 어긋나는 부분이 종종 보인다. 이에 대해서 아래

14) 김충실(2016<sup>14</sup>), 한국어 격조사분류와 유정성, 《한국(조선)어교육연구》 11호,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86쪽.

15) 김충실(2017), [생명도]와 한국어 어순, 《한국어교육연구》 12권 1호, 한국어교육연구소, 37쪽.

16) 현혜린(2018), 한국인 성인 화자의 문법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종결성, 타동성, 주어 유정성, 장소부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쪽.

17) 현혜린(2018), 한국인 성인 화자의 문법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종결성, 타동성, 주어 유정성, 장소부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쪽.

18) 김지혜(2021), 무정 체언과 조사 ‘에게’의 결합 원인 연구, 《人文科學》 80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35쪽.

19) 일부 논문에서 ‘유정성’을 ‘생명도’라고 하기도 한다.

20) 주향아(2013),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형성과 어순에 관한 연구 - 유정성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42권, 한국어의미학회, 226쪽. 재인용.

21) 김은일(2000), 유생성의 문법, 《현대문법연구》 20권, 현대문법학회, 72쪽.

22) 김형정(2010), 선행명사구의 유정성과 조사 「에게/에」의 선택, 《언어사실과 관점》 26 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41쪽.

23) 주향아(2013),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형성과 어순에 관한 연구 - 유정성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42권, 한국어의미학회, 225쪽. 재인용.

와 같이 자세하게 검토해 보겠다.

## 2.2. 국어 유정성의 개념 검토

첫째, 학자마다 유정성을 보는 기준이 다르지만,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animacy를 대부분 ‘유정성(有情性)’으로 번역하지만 이외에도 유생성(有生性), 생명도(生命度) 등 다양한 용어로 쓰기도 한다.<sup>24)</sup> 이 논의에서 ‘유정성(有情性)’이란 용어가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유생물(생물)은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 현상을 유지하여 나가는 물체. 영양·운동·생장·증식을 하며, 동물·식물·미생물로 나뉜다.’라고 하였다.<sup>25)</sup> 이에 따라 유생성이나 유생물의 판단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그에 비해 ‘유정물’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이 감각이 있는 것’이라 하며 ‘유정물’이란 개념을 ‘유생물’보다 주관성이 더 강하고, 생물학과 언어학에서 모두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근원적인 의미자질을 분석하는 차원에서도 ‘유정성’을 [+생명], [+의식], [+감정], [+감각]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유생성’은 단지 [+생명] 하나만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유산균, 나무, 나방’ 등과 같이 의식과 감정은 없고 생명만 가진 것은 국어학에서 유정성이 있다고 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유생성’이란 개념은 언어학적 특성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비하면 ‘유정성’은 훨씬 설득력이 강하다.

그리고 ‘유정물’의 ‘물’이 ‘물건, 물체’를 뜻하고, ‘유정성’의 ‘성’은 ‘성품, 성질, 특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용어의 의미 차이를 판별해야 한다. ‘유생물’의 개념으로 ‘유정성’을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어학에서는 ‘유정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유정 명사, 유정 동사, 유정 형용사’ 같은 용어를 쓴다. 즉, 한국어의 특성에 따라 ‘유정성’과 ‘유생성’, ‘유정물’과 ‘유생물’, ‘유정성’과 ‘유정물’들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유정성에 대한 개념을 성립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국어의 유정성은 무정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국어에서 ‘유정성’이나 ‘유생성’의 ‘유’자는 ‘있을 유’인데 ‘성’자를 붙이더라도 ‘유’와 ‘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뜻할 수 없다. 이는 국어에만 나타나는 ‘유정성’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언어는 포용성을 지닌 유정성 개념을 가진다. 김은일(2000)에서는 “유생성이란 넓은 의미에서 생명을 가진 생물과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통칭한다.”<sup>26)</sup>고 밝혔다. 이는 서양에서 전해져 왔지만 국어학에서 이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이를 근거로 논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 ‘생명도’란 개념도 이와 동공이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한자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학계에서는 ‘유정성’보다 ‘생명도’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중국어 ‘생명도’라는 단어 자체가 ‘어떠한 정도나 한도’를 뜻한 ‘도’ 자를 사용해서 위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유’를 피하고, 유정과 무정 중간 부분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포함하여 ‘생명도’를 선택하게 된 것이라 추측된다.

24) 많은 논의에서 유정성(有情性)은 흔히 한정성(限定性)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어학계에서 한자 ‘有定性(유정성)’은 유정성(有情性)이 아니라 ‘한정성(限定性)’에 해당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25)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ict.korean.go.kr>).

26) 김은일(2000), 유생성의 문법, 《현대문법연구》 20권, 현대문법학회, 72쪽.

하지만 이와 다르게 국어의 특성에 의하여 하나의 언어적 속성으로서 처음부터 ‘유정성’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영어나 독일어 등 언어에서 나타나는 ‘성’과 ‘수’의 개념이 사실 국어에서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성’<sup>27)</sup>을 의미하는 ‘남성’과 ‘여성’을 국어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특별한 방식이 없고, 보편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두루 유정성으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어의 ‘수’에 대한 개념도 유정성과 상관없이 접미사 ‘-들’을 붙여서 쓴다. 또한 영어에서 유정성이 없는 것은 흔히 주어가 되는 점도 국어와 다르다.

물론 실제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 체계를 단순히 완전한 유정 대 무정의 이원 대립적으로 나뉘어 판단할 수 없다. ‘생명도’ 등 용어가 나타난 것은 간접적으로 유정성이 이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계층적인 것을 증명한다. 유정성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유정과 무정의 경계에 있는 것들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정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보통 거론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무정성은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라 일반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형태론 관점에서도 영어 animacy와 unanimacy란 용어를 국어의 ‘유정성’과 ‘무정성’으로 대응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animacy에 가장 알맞은 한국어 용어를 ‘유정성’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유정성’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이분법이 아닌 원형이론에 적용해야 하므로 ‘유정성’의 범위가 조금씩 변화를 일으킨다.

셋째, ‘유정성의 위계’는 Silverstein(1976), Comrie(1989), Croft(1990)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국어학에서도 이를 근거로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유정성’이란 위계적 범주<sup>28)</sup>로서 연속적인 형태이다. 이는 ‘기능-유형론적 문법’이론에서 다룬 ‘원형성’과 ‘정도성’과 맞물린다.<sup>28)</sup> 즉, 유정성은 언어적 특성으로서 유와 무의 개념에 외에도 등급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화제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류는 체언의 의미특성에 따라서 ‘전형적인 유정물 체언, 유정물 체언에 가까운 부류, 전형적인 무정물 체언, 무정물 체언에 가까운 부류, ‘유정물 ... 무정물’ 스펙트럼 상의 중간 지대에 놓인 부류’ 등으로 나누는 것이다.<sup>29)</sup>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정성에 관한 기원적인 논의인 Comrie(1989)에서 언급한 ‘인간 > 비인간 생물 > 무생명물’이란 유정성 위계를 바탕으로 한다. 본고에서도 국어 유정성 위계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위계를 인정한다. 이른바 ‘전형적인 유정물 체언’을 [+생명], [+감정], [+의식]을 가져 [+유정성]으로 보고, ‘전형적인 무정물 체언’을 [-유정성]으로 보고, ‘유정물과 무정물 사이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체언’을 구체적인 문장 전체의 의미에 따라 결정하여 [±유정성]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생물학에서 ‘인간’은 ‘동물’의 하위유형에 속하고 ‘동물’은 ‘생물’의 하위유형에 속하며, ‘생물’과 ‘무생명물’을 이분법으로 ‘물체’ 개념에 하위유형에 속한다. 이와 달리 언어학에서 ‘물체’와 대응한 ‘체언’을 ‘인간 체언’, ‘비인간 생물 체언’과 ‘무생명물 체언’으로 체계화하며, ‘비인간 생물 체언’은 ‘일반 동물 체언’<sup>30)</sup>, ‘미생물 체언’<sup>31)</sup>, ‘식물 체언’을 포함한다. 아래 도식을 통해 이런 관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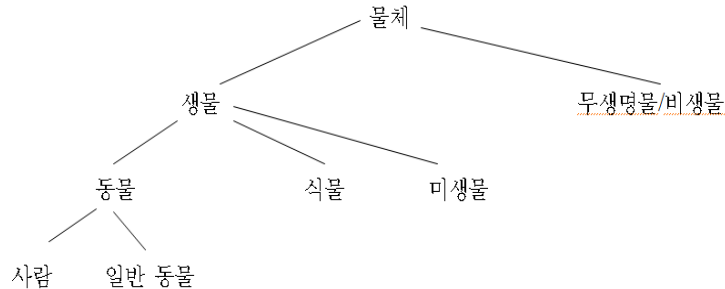
27) 여기서 말하는 ‘성’은 전통적인 관점으로 생물학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다. ‘중성’을 제외한다.

28) 김형정(2010), 선행명사구의 유정성과 조사 「에게/에」의 선택, 《언어사실과 관점》 26 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41-1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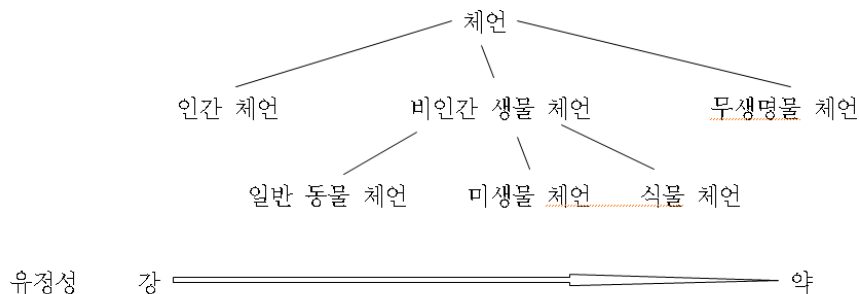
29) 김형정(2010), 선행명사구의 유정성과 조사 「에게/에」의 선택, 《언어사실과 관점》 26 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43쪽.

30) 생물학에서 일반적으로 동물은 등뼈가 있는 척추동물과 등뼈가 없는 무척추동물로 나눈다. 척추동물에는 포유류, 파충류, 조류, 양서류, 어류 등이 있으며 무척추동물에는 강장동물, 극피동물, 편형동물, 환형동물, 연체동물, 절지동물 등이 포함된다. 여긴 ‘일반 동물’은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중의 독특한 포유류인 ‘사람’만 제외한다.

설명할 수 있다.



<그림1: 생물학적 '물체'의 하위유형>



<그림2: 언어학적 '체인'의 유정성 위계>

유정성 위계는 이에 따라 ‘인간 체인 > 비인간 생물 체인(일반 동물 체인 > 미생물 체인 > 식물 체인) > 무생명물 체인’의 배열로 정리할 수 있다. 유정성 범위는 이로 인해 [+생명], [+의식], [+감정]을 가진 사람부터 일반 동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위계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유현경(2007)에서는 조사 ‘에게’는 결합되는 명사에 [유정성] 자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가 되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그 결합이 제약되기도 한다고 하였으며, 유정성에 대한 판단은 화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sup>32)</sup> 김형정(2010)에서는 위계 설정에는 단순히 유정성만이 일원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도 ‘개별화, 지시성, 한정성, 단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얹혀서 상호 작용한다고 하였다.<sup>33)</sup> Whaley(2010)에서는 유정성은 계층성 외에도 사회중심적 요인, 친숙도, 한정성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한다고 하였다.<sup>34)</sup> 김충실(2017)에서는 명사구 병렬문에서 선행절과 후행

31)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미생물’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 보통 세균, 효모, 원생동물 따위를 이르는데,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였다.

32) 유현경(2007), ‘에게’와 유정성, 《형태론》 9권 2호, 형태론, 272쪽.

33) 김형정(2010), 선행명사구의 유정성과 조사 「에게/에」의 선택, 《언어사실과 관점》 26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87-190쪽.

34) 김충실(2017), [생명도]와 한국어 어순, 《한국어교육연구》 12권 1호, 한국어교육연구소, 44-45쪽, 재인용.

절의 순위는 생명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때로는 생명도의 ‘나 먼저 원칙’이 아니라 생명도에 참여하는 ‘힘의 원칙’외에 문화 인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것을 제시하였다.<sup>35)</sup> 따라서 유정성을 수평적 관점에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넓은 범위에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유정성’에 관한 문제는 결국 주어나 서술어, 명사나 동사, 체언이나 용언의 문제가 아니라, 문장 전체의 문제이다. ‘유정성’은 문장 전체의 의미를 통해 인식되는 것이며, 명사나 동사의 독자적인 의미가 아니다. 즉, 매개의 단어들은 문장 전체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정성이 없는 단어라도 문장 구조에서 유정성이 있는 흔적을 쉽게 찾을 수도 있다. 체언이나 용언의 유정성이 문장 속에서의 유정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다. 유정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어휘 차원에서 진행했지만 지금은 문장 차원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1)<sup>36)</sup>: ㄱ. 옆집에게 소개받은 인테리어 전문점

ㄴ. 운전자들이 다수의 택시에게 불만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난폭운전 때문이다.

ㄷ. 뱀{에/에게} 물렸다면 2차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합니다.

ㄹ. 잠깐 사이 벌{에/에게} 다섯 방을 쏘였습니다.

예문 (1ㄱ)과 (1ㄴ)에서 ‘옆집’은 [-유정성]을 갖고 있지만, 내포 의미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유정성]의 뜻이 함의되어 있으며 ‘택시’는 ‘택시 운전자’라는 [+유정성] 체언을 가리킨다. (1ㄷ)과 (1ㄹ)은 각각 동물명사 ‘뱀’이나 ‘벌’에 조사 ‘-에’와 ‘-에게’가 모두 결합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단어 하나를 통해 유정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자면 유정성은 어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문장 전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많은 학자들은 유정성이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설명하는 방식도 역시 유정성을 어휘 측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현경(2007)에서는 조사 ‘-에게’는 명사의 [유정성] 의미자질을 활성화 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국어의 [유정성]은 조사 ‘-에게’의 선택에 관여하는데 이는 주로 화자의 심리적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했다.<sup>37)</sup> 주향아(2013)에서는 유정성 위계가 동등한 명사구들은 소속, 친족어, 직위, 신분 등 몇 가지로 할 수 있으며, 이들을 세 부적으로 어순을 살펴보면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인 나 먼저 원리, 자연성의 원리, 현저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sup>38)</sup> 그리고 국어에서 [생명도]의 정도와 어순이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 이유는 한국 사회 내의 특수한 문화와 관련된 국어 화자들의 인지 구조가 언어에 반응된 것이라고 하였다.<sup>39)</sup>

사실상 화자의 의도, 심리적인 판단, 문화의 환경 등 모두 문장 차원에서 고려해도 된다. 이는 전통

35) 김충실(2017), [생명도]와 한국어 어순, 《한국어교육연구》 12권 1호, 한국어교육연구소, 46-49쪽.

36) 김지혜(2021), 무정 체언과 조사 ‘에게’의 결합 원인 연구, 《人文科學》 80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16, 119쪽. ‘유정성’은 체언이나 용언의 문제가 아니고 문장 전체에 관한 문제이라는 주장에 맞는 예시는 ‘에게/에’의 선택 이외에 다른 표현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뒤에 설명할 것이다.

37) 유현경(2007), ‘에게’와 유정성, 《형태론》 9권 2호, 형태론, 272쪽.

38) 주향아(2013),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형성과 어순에 관한 연구 - 유정성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42권, 한국어의미학회, 239-243쪽.

39) 주향아(2013),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형성과 어순에 관한 연구 - 유정성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42권, 한국어의미학회, 243쪽.



적으로 어휘를 중심으로 유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한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는 접근 방식이다. 문장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단위이다. 문장 속에서 구체적인 기능과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 유정성을 표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정성은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으로 최초에 자연 생명 범주의 원시반응이 아니라, 인간 주관의식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sup>40)</sup>

다섯째, ‘유정성’은 단순한 의미론만의 영역도 아니고 완전한 문법론 영역의 문제도 아니며, 통사의 미론적으로 종합적이고 다원적인 문제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어의 유정성을 화용론, 인지의미론, 언어원형이론, 언어유형론보다 이 문장에서 통사의미론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41)</sup>

많은 연구에서 유정성의 판정은 자연계 생명의 유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의미론적 [유정성] 의미자질의 유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많이 기술해왔다. 그리고 ‘유정성’ 중에서 ‘성’자는 특성을 의미하는 전형적인 의미자질 표시로서 학자들은 직관적으로 의미론의 연구 영역으로 판단하기 쉬울 수도 있다. 고영근(2005:23)에서도 조사 ‘-에’와 ‘-에게’를 문법론적으로 조건 지어진 이형태라고 보는 관점에 대하여 비판하였고, 유정성은 문법범주가 아니라 명사에 내재해 있는 의미자질의 하나일 뿐이라고 하였다.<sup>42)</sup> 하지만 유정성은 절대로 의미자질 범주로만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학자들이 유정성이 의미영역에서 문법 현상으로 부호화된다는 논의 중에서 지나치게 유정성을 문법론에 귀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은일(2000)에서는 유생성이라는 의미영역이 문법적인 일부 현상으로 부호화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김충실(2017)에서는 생명도이라는 의미자질은 문법적으로 언어에 따라 격 표시, 주어 선택, 어순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호화된다고 하였다.<sup>43)</sup> 이로써 통사의미론 차원에서 문장 전체에 출발점으로 실제적인 언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유정성을 보아야 한다.

이상 다섯 제약으로 추상적이고 복잡한 유정성 개념에 대한 위와 같이 여러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정리하면 국어에서의 유정성의 개념은 ‘유생성’, ‘한정성’, 유정물’, ‘유생물’ 등과 구별되며, 국어 유정성은 무정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유정성’의 위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유정성 위계를 ‘인간 체언 > 비인간 생물 체언 > 무생명물 체언’에 따라 제시한다. 유정성 문제는 문장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단순한 의미론 영역이나 문법상 문제가 아니라 통사의미론적인 다원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국어 유정성을 문장 전체에서 생명·감정·의식의 의미와 일정한 문법을 통해 드러내는 언어 성질의 하나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정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다음으로 통사의미론의 관점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 각각 의미상 어휘 품사 분류에 의한 유정성과 문법에서 나타나는 유정성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40) 이런 점에서 개념적 은유와 유연성을 가지는데 본 논의에서 이에 대해서 논외로 한다.

41) 본 연구는 통사의미론적 차원에서 유정성에 대한 고찰하고자 하지만 음운론, 형태론, 화용론 등 분야에서 학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특히, 본고는 유정성에 관한 조사 ‘-에’와 ‘-에게’ 간의 관계 문제는 유현경(2007)에서 언급했던 ‘-에’와 ‘-에게’가 ‘통사론적 이형태’가 아니란 주장과 일치한다.

42) 유현경(2007), ‘에게’와 유정성, 《형태론》 9권 2호, 형태론, 258-61쪽, 재인용.

43) 김충실(2017), [생명도]와 한국어 어순, 《한국어교육연구》 12권 1호, 한국어교육연구소, 40쪽.

### 3. 어휘 품사 분류에 의한 유정성

어휘 하나가 [+유정성]이란 의미자질을 가진다고 반드시 전체 문장에서 유정성이 있음을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유정성은 어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어휘에서 나타나는 유정성이 제일 기초적이다. 선행연구에서 어휘를 품사별로 나누어 유정성을 보는 논의는 거의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품사’의 개념은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이고 현재 국어의 학교 문법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아홉 가지로 분류한다.<sup>44)</sup> 이에 따라 어휘 차원에서 [+유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래와 같이 전형적인 예시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sup>45)</sup>

- [+유정성] 명사: 남자, 의사(醫師), 고양이, 한국인, 어머니, 친구, 장군(將軍),  
씨, 님, 웅, 명(名), 분, 마리, 필(匹), 두(頭), 미(尾), 수(首)...
- [+유정성] 대명사: 그녀, 우리, 저, 나, 너, 자기, 당신, 저희, 웅(翁)...
- [+유정성] 조사: -에게, -한테, -께서, -아/야, -더러...
- [+유정성] 동사: 죽다, 먹다, 사랑하다, 이해하다, 사다, 전화하다...
- [+유정성] 형용사: 슬프다, 외롭다, 힘들다, 싫다, 부끄럽다, 착하다...
- [+유정성] 부사: 방글방글, 멍멍히, 사뿐사뿐, 깡충깡충, 울컥, 냉정히...
- [+유정성] 감탄사: 아야, 아유, 어머, 아이고, 흙, 웅, 쟈장칠...

위에 제시하듯이, 관형사와 수사는 [+유정성]을 가지지 않는다. 관형사<sup>46)</sup>는 독립적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붙는 체언에 의해 유정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여러’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들어온다.’라는 문장에서 대명사 ‘명’이 ‘사람’을 뜻하여, [+생명], [+감정], [+의식]의 자질을 가져 유정성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내가 어제 밤에 이 책을 여러 번을 읽었다.’란 문장에서 ‘여러’가 ‘책’을 수식하며 [+생명], [+감정], [+의식]의 자질을 가지지 않아, 유정성으로 보기 어렵다. 수사도 원의미에는 [+유정성]이 가지지 않고, 문장 전체 의미에 따라 [+유정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 다섯이 찾아왔다.’란 문장에서 ‘다섯’을 [+유정성]이 가진 것으로 보고,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란 문장에서 ‘다섯’은 [+생명], [+감정], [+의식]의 흔적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감탄사는 ‘품사의 하나로써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의 부류’의 뜻으로 그 중의 ‘놀람이나 느낌’은 거의 모두 유정성을 가진다고 보는데, ‘부름과 응답 등’은 유정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힘들다.

이외에도 명사, 대명사, 조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 품사 종류 중에서 일부 [+유정성] 어휘가 존재

44)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ict.korean.go.kr>).

45)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여 제시된 예시 중에서 다의어나 동음어의 경우가 존재한다. 여기서 쓰는 뜻은 아래와 같다.

님: [의존 명사] (사람의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여)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

분: [의존 명사] [2] 높이는 사람을 세는 단위.

마리: [의존 명사] [1] 짐승이나 물고기, 벌레 따위를 세는 단위.

46) ‘쟈장칠’, ‘떡을할’ 등은 감탄사와 관형사의 품사 특성을 가진 극소수 육하는 말이 있다. 이들은 유정성이 가지고 있지만 감탄사에서 유래가 된 형태로 본다.

한다. 예를 들어 ‘가끔’ 같은 부사는 [+유정성]이 될 때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이런 단어를 여기서 제시하지 않았고, 반면에 ‘전화하다’와 같은 발화동사는 동작주가 사람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정성] 어휘가 된다. 동사 중에 발화동사 뿐만 아니라, ‘주다’와 같은 수여동사, ‘받다’와 같은 수혜공사, ‘깨닫다’와 같은 경험동사, ‘말하다’와 같은 수행동사, ‘싸우다’와 같은 대칭동사, ‘바라다’와 같은 기원동사, ‘듣다’와 같은 지각동사, ‘발견하다’와 같은 성취동사 등도 유정성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정성이 명사와 동사에 가장 많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어휘 품사별로 유정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유정성] 자질을 가진 대표적인 명사, 대명사, 조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는 모두 [+생명], [+감정], [+의식]이란 의미자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모든 유생물이 유정성을 가진다는 논의와 구별된다. [+생명] 외에 [+감정], [+의식]이란 의미자질도 매우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져야 유정성이 실현된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말하거나 문장구성으로 서술할 때 어휘 하나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 문장 전체의 문법화와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즉, 어휘 차원에서 기본적인 [+유정성]을 바탕으로 문장 전체 의미에 의하여 여러 문법을 통해 유정성을 드러내게 한다.

#### 4. 문법에서 나타나는 유정성 현상

국어 유정성은 문장 전체에서 생명·감정·의식의 의미와 일정한 문법을 통해 드러내는 언어 성질의 하나이므로 실제적인 예문을 통해서 문법에서 유정성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 살펴본다.

첫째, 조사 ‘-에’와 ‘-에게’<sup>47)</sup>는 결합되는 명사의 [유정성] 자질에 따라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 이형태 관계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조사 ‘-에게’는 ‘-에’의 이형태가 아니며 고유의 의미와 기능이 가지고 있는 별개의 형태소이다.<sup>48)</sup> 조사 ‘-에게’는 문장에서 유정성이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지<sup>49)</sup>로 볼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조사 ‘-에게’는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1」 일정한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는 격 조사. 어떤 물건의 소속이나 위치를 나타낸다. 「2」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3」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sup>50)</sup>로 3가지의

47) 본문에서 유정성을 분석할 때 ‘-에 따르다’, ‘-에 의하다’, ‘-에 속하다’ 등 관용형과 신문에서 ‘-에/에게’ 중 ‘-에’만 쓰는 특수 상황이 제외된다. 그리고 ‘-에/에게’는 유정성의 중요한 화제로서 이에 대해 유현경(2007), 김형정(2010), 한승규(2014) 등이 세밀하게 논의하였다. 유현경(2007)에는 무정물 중에서도 유정성을 가지고 있는 부류로 표현되는 예를 치밀하게 제시하였다. 김형정(2010)에서는 ‘-에/에게’를 영향주, 행위주, 도구의 의미영역에 따라 살펴보았다. 한승규(2014)에는 조사 ‘-에게’와 무정물 명사 간의 결합에서 명사를 ‘교통수단’, ‘인간의 형상’, ‘천체’, ‘컴퓨터’, ‘일반 구체물 명사’, ‘추상 명사’ 등 갈래로 나누었다.

48) 유현경(2007), ‘에게’와 유정성, 《형태론》 9권 2호, 형태론, 261쪽.

49) 여기서 말하는 표지는 부호화의 개념과 다르다. ‘부호화’는 ‘주어진 정보를 어떤 표준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거꾸로 변환함’이므로 유정성이 부호화된다는 것은 유정성이란 의미영역이 일정 문법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정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법으로 드러내는 것뿐이라 ‘표지’란 표현은 더 적당하다. 그리고 전통 개념인 유정성 체언이 ‘에게’와 결합하는 것보다 문장에서 유정성이 드러내기 때문에 ‘에’가 아닌 ‘에게’를 선택하는 것이다. 유정성 체언이 아닌 것도 ‘에게’와 결합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래서 ‘에게’는 문장에서는 유정성을 가진 전형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다.

뜻을 가진다. ‘-한테’는 ‘-에게’보다 더 구어적이고 ‘-께’는 ‘-에게’의 높임말이다. ‘-더러’와 ‘-보고’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뜻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체언 뒤에만 나타난다. 반면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의 의미를 ‘처소, 시간, 진행 방향, 원인, 움직임의 일으키게 하는 대상,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 수단(방법)의 대상, 조건이나 환경,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단위, 비교의 대상, 말하는 자리나 노릇, 범위, 앞말이 지정하여 말하고자 하는 대상, 첨가’<sup>51)</sup> 등 15갈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반드시 유정성이 아닌 체언 뒤에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국어에서 조사 ‘-에게/한테/께/더러/보고’로 표현되는 유정성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2)<sup>52)</sup> ‘[+유정성] 명사 + 에게/한테/께/더러/보고 = 유정성’ 형태의 예시:

- ㄱ. 철수에게 돈이 많다.
- ㄴ. 친구들에게 합격 사실을 알리다.
- ㄷ. 개에게 물리다.
- ㄹ. 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께 제일 먼저 알려 드리고 싶어요.
- ㅁ. 이것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 ㅂ. 형이 동생더러 금덩이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 ㅅ. 누가 너보고 그 일을 하라고 그러더냐?
- ㅇ. 나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 ㅈ. \*책에게 이름을 지어라.

예문 (2)는 ‘[+유정성] 명사 + 에게 = 유정성’ 형태의 예시이다. 그 중의 (2ㄱ), (2ㄴ), (2ㄷ)은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의 조사 ‘-에게’를 3가지 뜻풀이로 하나하나 대응한 것이다. ‘-에게’는 사람이나 동물과 결합해서 전체 문장에 유정성을 부여하게 된다. (2ㄹ)은 ‘부모님’을 존경하기 위해서 ‘-에게’의 높임말 ‘-께’를 사용한 것이고, (2ㅁ)에서 ‘-한테’는 ‘-에게’의 구어형식으로 용법은 ‘-에게’와 같다. (2ㅂ)과 (2ㅅ)의 ‘-더러’나 ‘-보고’는 사람을 가리키는 ‘동생’이나 ‘너’와 결합이 성립된다. (2ㅇ)의 ‘화분’은 생명·감정·의식이 없고 문장 측면에서도 유정성의 의향을 보이지 않아 ‘-에게’대신 ‘-에’에만 결합이 가능하다. (2ㅈ)같은 경우는 비문이다. ‘책’은 생명·감정·의식이 없기에 유정성의 표지 ‘-에게’를 쓸 수 없다.

(3) ‘[-유정성] 명사 + 에게 = 유정성’ 형태:

- ㄱ. 신에게 제물을 바쳐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다.
- ㄴ. ‘미주리’란 이름의 군함 위에서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하는 조인식이 거행되었다고.

예문 (3)은 ‘[-유정성] 명사 + 에게 = 유정성’의 기본 형태이다. 예문에서 ‘신’<sup>53)</sup>과 ‘미국’은 [-유정성] 명사인 데 여기서 의인화되어 생명·감정·의식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문장의 차원에서 유정성을 가지고 조사 ‘-에게’와 결합된다.

50)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ict.korean.go.kr>).

51)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ict.korean.go.kr>).

52) 중세국어의 예시 (6)과 (7)을 제외하고 예문 (2)~(12)은 국립국어원(1999), 《우리말샘》에서 뽑은 것이다.

53) 여기의 ‘신’은 유신론자에게는 [+유정성] 명사이고 무신론자에게는 [-유정성] 명사이다. 이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 않기로 한다.

- (4) ‘[±유정성] 명사 + 에게 = 유정성’ 형태:

- ㄱ. 지역의 아이티(IT) 기업에게 이 러브 머니는 가장 큰 돈줄이다.
- ㄴ.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렸다.

예문 (4)는 ‘[±유정성] 명사 + 에게 = 유정성’의 형태이다. (4ㄱ)의 ‘기업’은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이고 그 중의 ‘조직체’는 ‘체계 있게 짜여 있는 체제나 단체.’의 뜻으로 [+유정성]과 [-유정성]의 두 가지 의미자질을 가진다. (4ㄴ)의 ‘경찰’도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과 ‘경찰관’의 두 가지 뜻으로 [±유정성]의 두 가지 의미자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문장에서 사람을 의미할 때는 ‘-에게’와 결합하고 체제나 직업을 지향할 때는 ‘-에’와 결합한다. 다의어의 상황은 문장 전체에 의해 유정성을 정한다. 이와 같은 단어는 ‘민족’과 ‘종족’ 등이 있다.

둘째, 주격 조사 ‘-가/이’의 높임말인 ‘-께서’는 사람을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문장에서 유정성을 나타낸다.

- (5) ㄱ. 아버님께서 신문을 보신다.  
 ㄴ.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다.

셋째, 현대국어에서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의 ‘-아’와 ‘-야’<sup>54)</sup>는 ‘손아랫사람이나 짐승 따위를 부를 때 쓰는 격 조사.’의 뜻으로 [-유정성] 체언 뒤에는 ‘-아’를 붙일 수 없다. 그리고 ‘-이시여’는 ‘-이여’의 높임말이고 어미 ‘-시-’와 정중하게 부르는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여’가 결합한 말이라 사람이나 어떤 실제적인 존재를 존대하는 유정성 조사다.

- (6) 현대국어 [+유정성] 명사 + 호격조사 ‘-아/야/이시여’의 형태:

- ㄱ. 영숙아, 이리 와 봐.
- ㄴ. 새야 새야 파랑새야.
- ㄷ. 왕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 ㄹ. \*책아, 어디야?<sup>55)</sup>

중세국어에서 호격 조사는 존칭의 구별이 있었다. ‘-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고 ‘-아’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사용했다.

- (7) 중세국어 [+유정성] 명사 + 호격조사 ‘-하/아’의 형태:

- ㄱ. 卍尊<sub>하</sub> 내 이젓 이 모미 믈츠매 變<sub>하</sub>야 업수물 조츠리이다 (《능엄경언해》 2:4ㄱ)
- ㄴ. 부테 니르샤티 太王<sub>아</sub> 네 일즉 업디 아니호야셔 엇데 업수물 아는다  
 (《능엄경언해》 2:4ㄴ)

54)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을 의해 ‘-야’는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여 쓰는 것이고, ‘-아’는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여 쓰는 것이다.

55) 이는 뮤지컬이나 일상생활에서 일부러 의인화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서 쓸 수도 있지만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문 (7) 중에서 ‘세존’은 최상의 대상이므로 ‘-하’를 붙이지만 부처가 대왕을 부를 때는 대왕이 부처보다 지위가 낮아 “대왕아”라고 불렀다. 통시적으로 보면 중세국어의 ‘-하/아’는 현대국어의 ‘-아’로 통일되었다.

넷째, 중세국어의 속격 조사에는 ‘-의/의’, ‘-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의’는 유정물 지칭의 평칭, ‘-스’은 유정물 지칭의 존칭이나 무정물 지칭의 체언에 결합한다.<sup>56)</sup> 국어는 중세로 거슬러 올라갈 수록 격조사에 반영된 유정성의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8)   ㄱ. 覺의 精은 모민 識이라 (《능엄경언해》 4:112ㄱ)  
       ㄴ. 도끼를 알 안고 있는 닭의 동주리 아래 드라 두면 (《언해태산집요》 11ㄴ)  
       ㄷ. 낮 양조는 아희 時節와 엇더뇨 (《능엄경언해》 2:5ㄱ)

예문 (8)a는 “각’의 ‘정’은 몸의 ‘식’이다.”의 뜻으로 ‘각’과 ‘몸’ 뒤에 ‘-의’를 결합한 것이다. (8)b는 ‘도끼를 알 안고 있는 닭의 동주리 아래 달아두면’의 뜻이고 ‘닭’과 ‘-의’의 결합이다. (8)c는 ‘낮 모양은 아이 때와 어떠하나?’의 뜻으로 ‘아희’ 뒤에 ‘-스’이 결합한 예시다.

다섯째, 체언과 접속 조사 ‘-와/과’의 결합은 유정성 위계와 관련이 있다. ‘-와/과’는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 조사라 선후행 명사구가 유정성 위계상 동일한 지위에 있을 때 접속이 가장 자연스럽지만<sup>57)</sup> 선후행 명사구의 유정성 위계가 서로 다르다면 위계가 높은 쪽이 선행하고, 낮은 쪽이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sup>58)</sup>

- (9)   ㄱ. 경숙과 민희는 여고 동창이다.  
       ㄴ.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해 싸웠다.  
       ㄷ. 미래사회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이 공존하는 휴머니즘의 사회이다.

예문 (9ㄱ)은 ‘경숙’과 ‘민희’, (9ㄴ)의 ‘자유’와 ‘평등’은 유정성 등위 접속이고 문장이 자연스럽다. (9ㄷ)의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 중의 ‘자연’은 ‘인간’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신’은 ‘인간’보다 위층위에 있는 존재라 유정성이 낮은 ‘자연’을 ‘인간’에 앞에 두고 ‘자연과 인간’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의미론 관점으로 보면 어색한 면이 있다.<sup>59)</sup>

여섯째, 격조사의 생략은 결합된 체언의 유정성 위계와 관련이 있다. 유정성 위계 차이가 높을 때 격조사의 생략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 (10)  ㄱ. 너(는) 밥을 먹었어?  
       ㄴ. 난 밥(을) 먹었다.

56)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속격조사)

57) 조사 ‘-와/과’는 ‘둘 이상의 대상을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자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함께 하는 대상이 나, 상호성, 비교성, 기준성을 갖는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공동격 조사)’이므로 서술어의 영향을 받는다.

58) 주향아(2013),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형성과 어순에 관한 연구 -유정성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42권, 한국어 의미학회, 243쪽.

59) 하지만 실제 화자나 필자의 의도에 따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체언을 앞에 두고 그렇지 않는 내용을 뒤에 놓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유정성 위계 차이가 명사구 중 체언의 선후순서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고, 다른 요인도 함께 고려해서 전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ㄷ. 그분(이) 내일(에) 외국(에) 가신다지?  
 ㄹ. 엄마(가) 고모(를) 만났지?

예문 (10ㄱ)은 주격 조사 ‘-는’을 생략하는 것이고 (10ㄴ)은 목적격 조사 ‘-을’을 생략한 것이다. ‘너’나 ‘나’의 유정성은 ‘밥’보다 훨씬 높아 생략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다. 즉, 대명사 ‘너’, ‘나’와 명사 ‘밥’ 사이에 대명사가 동작주인 것이 자명하다. (10ㄷ)에서 생략되는 ‘-에’는 부사격 조사이다. ‘그분’의 유정성이 가장 높고 ‘외국’과 ‘내일’의 의미가 이 문장에서 시간과 장소밖에 의미하지 못한 제한성이 있어 조사 생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장 (10ㄹ)에서 ‘엄마’와 ‘고모’의 유정성 위계가 비슷해 조사 ‘-가’와 ‘-를’을 생략하면, ‘엄마가 고모를 만났지?’, ‘엄마를 고모가 만났지?’, ‘엄마와 고모가 만났지?’ 등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유정성 위계가 차이가 적을 때, 조사의 생략이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데 오해를 가져다준다. 그래서 체언의 유정성 위계 차이가 높을 때 문장의 격조사의 생략이 가능하고 자연스럽다.

일곱째, 선어말어미 중의 ‘-시-’<sup>60)</sup>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화자에게 사회적인 상위자로 인식될 때 그와 관련된 동작이나 상태 기술에 결합하여 그것이 상위자와 관련됨을 나타내는 어미.’의 뜻으로 유정성을 가진다. 예문 (11)은 ‘아버님’과 ‘충무공’을 존경하기 위해서 ‘-시-’를 붙여서 쓴 것이다.

- (11) ㄱ. 아버님께서 오시었다.  
 ㄴ. 충무공은 훌륭한 장군이시었다.

여덟째, 의존명사의 결합은 체언의 유정성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명(名), 분, 마리, 필(匹), 두(頭), 미(尾), 수(首)’는 유정성 체언과 결합하는 것이며, 반대로 의존명사 ‘개’는 유정성 체언과 결합이 안 되고, ‘것’같은 경우는 유정성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씨’는 ‘성년이 된 사람의 성이나 성명, 이름 아래에 쓰여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의 뜻이고 ‘님’은 ‘사람의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여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의 뜻으로 ‘씨’와 ‘님’은 유정성을 드러낸다.

- (12) ㄱ. 군의원 세 명과 위생병 두 명은 묵묵히 창 앞에 서 있는 신동렬 대위를 쏘아보고 있다.  
 《홍성원, 육이오》  
 ㄴ. 이 우산은 언니 것이다.  
 ㄷ. 상에 있는 굴을 몇 개 가져가도 괜찮다.  
 ㄹ. 최영희 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예문 (12ㄱ)은 ‘명’과 ‘군의원, 위생병’의 결합이며 ‘쏘아보다’란 유정성 동사와 함께 문장이 유정성을 드러내게 된다. (12ㄴ)은 유정명사 ‘언니’와 의존명사 ‘것’의 결합인데 사실상 ‘우산’을 뜻하여 문장에서 유정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12ㄷ)은 ‘굴’과 ‘개’의 결합으로 문장이 유정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12ㄹ)은 ‘님’은 유정성 의존명사로 유정성 표지 ‘-에게’와 결합된다.

60) 하지만 요즘 일상생활에서 쓰는 ‘커피 나오셨습니다.’ 같은 표현은 학교 문법 범위를 넘는 신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커피’가 유정성이 가진 것이 아니라 청자 존재까지 하는 특수 상황이다.

아홉째, Croft(1990), 김은일(2000), 주향아(2013), 김충실(2017) 등의 선행 연구들은 어순과 유정성의 위계와 관련 있다고 제시하였다. 어순의 문제 중에서 위계가 높은 쪽이 선행하고, 낮은 쪽이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특히 국어에서 주어를 선택할 때 유정성이 높은 것은 항상 주어가 자연스럽게 되고 피동문보다 사동문이 더 많이 실현된다. 이는 동작주역의 유정성이 경험주역보다 높고, 경험주역의 유정성이 대상주역보다 높은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sup>61)</sup> 아래 예시(13)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13)<sup>62)</sup> 가. His writing brings him \$17,000 a year.  
 가'. 그는 글을 써서 1년에 17,000불을 번다.  
 나. The painting satisfied me.  
 나'. 그 그림에 나는 만족했다.  
 다. This room contains a piano.  
 다'. 이 방에는 피아노가 있다.

예문 (13)의 영어 문장에서 주어는 'his writing', 'the painting', 'this room'인데 국어로 번역하면 오히려 '그', '나', '피아노'가 자연스럽게 주어가 된다. 유정성의 위계는 높을수록 지배력이 높아 목적어보다 주어가 되는 가능성이 더 크다.<sup>63)</sup>

열 번째, 국어에서 동작주역이나 경험주역이 많이 생략되는 것도 유정성이 높아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다녀오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랑해요.', '살펴 가세요.' 등의 표현은 주어 생략 현상<sup>64)</sup>의 예이다.

## 5. 맺음말

유정성은 언어의 중요한 특성이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많아 국어학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영어의 상관 이론을 단순히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에 맞는 유정성의 개념과 특성을 찾기 어렵다. 본문은 어휘·문장, 의미론·문법론, 생명·감정·의식 차원에서 유정성의 존재를 밝히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 국어 유정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제약을 통해 정리하였다.

첫째, 국어에서 '유생성', '생명도'보다 '유정성(有情性)'이란 용어가 더욱 타당하다. '유정성'과 '유생성', '유정물'과 '유생물', '유정성'과 '유정물', '유정성'과 '한정성'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유

61) 이는 Grimshaw(1990) 중의 의미역 위계를 참조한다. Agent > Experiencer > Goal/Source/Location > Theme. (동작주역 > 경험주역 > 도착점역/출발점역/장소역 > 대상)

62) 문연정(2019), 영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사동문 습득: 주어의 유정성이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쪽.

63) 이 논의는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로 한국어는 사동, 피동법의 어휘 사동사, 피동사가 근대국어 시기에 파생된 것으로 한국어에서는 능동문, 주동문 표현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통사의미론적 특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한국어에서 주어가 갖고 있는 [+유정성]이라는 일반적인 특성이기도 한다.

64) 보통 문장에서 주어가 표현되지 않는 것을 '무주어 현상'이라 하고, '주어 생략문'과 '무주어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정성에 대한 개념이 성립하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 둘째, 국어의 유정성이 무정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셋째, ‘유정성의 위계’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연속적인 형태이며, 상황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 체언 > 비인간 생물 체언(일반 동물 체언 > 미생물 체언 > 식물 체언) > 무생물 체언’ 순으로 배열된다. 넷째, ‘유정성’에 관한 문제는 결국에 주어나 명사, 동사, 체언, 서술어의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장 전체의 문제이다. 즉, 유정성은 어휘를 바탕으로 하지만 문장의 특수성 속에서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대에 따라 문장 차원에서 유정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다섯째, ‘유정성’은 단순한 의미론 영역 문제나 완전한 문법론 논의가 아니라, 통사의미론적 다원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상 다섯 제약을 통해 국어 유정성을 문장 전체에서 생명·감정·의식의 의미와 일정한 문법을 통해 드러내는 언어 성질의 하나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의미상 유정성은 어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어휘에서 나타나는 유정성이 제일 기초적이다. 어휘 품사에 따라 쉽게 [+유정성] 명사, [+유정성] 동사, [+유정성] 형용사, [+유정성] 부사, [+유정성] 대명사, [+유정성] 조사, [+유정성] 감탄사 등을 쉽게 발견될 수 있다. 하지만 관형사와 수사의 유정성 특성이 명확하지 않다.

유정성은 여러 문법적 방법으로 실현된다. 먼저 조사 중 여격 조사 ‘-에게/한테/께/더러/보고’, 주격 조사 ‘-께서’, [+유정성] 호격 조사 ‘-아/야’, 중세국어 관형격 조사 ‘-의/의/ | /스’, 접속조사 ‘-와/과’ 등과 체언의 결합, 그리고 격조사의 생략 등 문제에서 유정성이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어미 중의 선어말어미 ‘-시-’는 유정성이 가진 유일한 표지라고 할 수 있다. 또 의존명사의 결합은 체언의 유정성과 관련되어 있다. 어순에서는 위계가 높은 쪽이 선행하고, 낮은 쪽이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주어 선택 문제에서 많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국어에서 주어가 많이 생략되는 것도 유정성이 높아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유정성은 형태소부터 단어, 구, 절, 그리고 문장 전체까지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언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고영근(2005), 형태소 교체와 형태론의 범위-형태음운론적 교체를 중심으로, 《국어학》 46호, 국어학회, 19-51쪽.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ict.korean.go.kr>)
- 김은일(2000), 유생성의 문법, 《현대문법연구》 20권, 현대문법학회, 71-96쪽.
- 김지혜(2021), 무정 체언과 조사 ‘에게’의 결합 원인 연구, 《人文科學》 80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13-140쪽.
- 김충실(2014), 擴展生命度層級在漢韓數標記上的反映,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278-284쪽.
- 김충실(2016ㄱ), 조선어격조사 생략과 생명도, 《중국조선어문》 204권,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5-12쪽.
- 김충실(2016ㄴ), 한국어 격조사분류와 유정성, 《한국(조선)어교육연구》 11호,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73-87쪽.
- 김충실(2017), [생명도]와 한국어 어순, 《한국어교육연구》 12권 1호, 한국어교육연구소, 37-57쪽.
- 김현희(2018), 중한 소유 관형어 출몰 차이를 통한 유정성 제약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113호, 중국어문학연구회, 7-23쪽.
- 김형정(2010), 선행명사구의 유정성과 조사 「에게/에」의 선택, 《언어사실과 관점》 26 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41-195쪽.

- 리칭린(2021), 한중 복수표지의 유형론적 대조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연정(2019), 영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사동문 습득: 주어의 유정성이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디메 - 한국어 고문헌 검색기 (<http://bab2min.pe.kr>)
- 연재훈(1995), 기능 - 유형 문법에서의 분석과 설명, 《언어학》 17호,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03-230쪽.
- 연재훈(1996), 국어 여격주어 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의 연구, 《국어학》 28권, 국어학회, 241-275쪽.
- 유현경(2007), ‘에게’와 유정성, <형태론> 9권 2호, 형태론, 257-275쪽.
- 조원영(2000), 한국어 글말과 입말에서의 지시 표현 - [유정]의 의미 자질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인정(2005),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무정성 주어와 타동사 구문-, 《한국어 교육》 16권 3호,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331-352쪽.
- 주향아(2013),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형성과 어순에 관한 연구 - 유정성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42권, 한국어의미학회, 223-245쪽.
- 한국학중앙연구원(200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aks.ac.kr>)
- 한승규(2014), 조사 ‘에게’와 결합하는 무정물 명사의 유정성 연구, 《韓國學研究論文集(3)》, 중국문화대학출판, 23-36쪽.
- 현혜린(2018), 한국인 성인 화자의 문법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종결성, 타동성, 주어 유정성, 장소부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용철(2017), “것” 분열 구문에서의 “것”의 유정성, 《생성문법연구》 27권 3호, 한국생성문법학회, 713-731쪽.
- Comrie, Bernard(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econd E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oft, William(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dsay J. Whaley(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 the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 USA: SAGE Publications, Inc. 김기혁 역(2010), 《언어 유형론 : 언어의 통일성과 다양성》, 소통, 223-238쪽.
- Sholeva, Irina Konstantinova(2021), 불가리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 ‘이/가’, ‘을/를’ 습득 연구 -초점, 한정성, 유정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Yamamoto, Mutsumi(1999), *Animacy and Reference* (Studies in Language Companion Series 46).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Yue Yifei(2018), 유정성 시각에서의 한, 중, 일, 베트남어 고빈도 재귀대명사 의미지도 연구, 《어문론총》 76권, 한국문학언어학회, 161-188쪽.

&lt;ABSTRACT&gt;

## An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animacy in Korean

XU LU

Animacy is one important linguistic characteristic, and there is a need to clarify and systematize its concepts and range. To identify this concept, this study approached to typical animate expressions, including the distinction between "-e"("-에") and "-ege"("-에게"), and based on previous studies, examined Korean animacy in the overall considerations. In this paper, current theory problems of Korean animacy have been raised and the concept of Korean animacy has been newly defined. The thesis also discussed the animate circumstances of each lexical part of speech based on this research and observed the animacy circumstances of grammar through the animacy of the test of sentences.

Different from previous researches, this thesis wanted to use ‘animacy (유정성)’ among various kinds of terms concerning animacy, and also assumed that Korean animacy excluding the unanimate cases. The animacy hierarchy can usually be arranged by 'human statements > non-human biology (general animal statement > microbe statements > plant statements) > no life statements, and that animate substantives should include human beings from general animals. Moreover, animacy should be decided on based on the whole sentence not on literal factors. This thesis also defined the animacy within the five restrictions like multi-syntactic semantic aspects not based on simple semantic and grammatical aspect. Therefore, it is asserted and proven that animacy is a linguistic characteristic expressed in the all sentences through grammar based on life, emotion, and consciousness, and that, through these processes, animacy influences all the aspects from morphemes, words, phrases, clauses, and sentences.

- 주제어 : 유정성, 유정성 위계, 생명도, -에, -에게, 언어 특성  
animacy, animacy hierarchy, 'saengmyongdo', '-e', '-ege', Language Characteristics

---

**서로**

소 속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전자우편 : xulu123@naver.com

---

논문 접수 : 2022. 11. 21.

논문 심사 : 2022. 11. 22. - 12. 06.

게재 결정 : 2022. 12. 08.

논문 발행 : 2022. 12. 22.

---